

칸트哲學과 그에 對한 考察(四)

李相殷

왜 時空自體의 直觀을 純粹直觀이라하는가? 이것은 時間과 空間은 그 自身이 소리나 빛 가튼 그런 經驗的性質의 것이 아닌 까닭이다. 왜 그런고하면 빛이나 소리는 모다 感覺의 內容이요, 時와 空은 그 內容을 □理하는 形式인 까닭이다. 內容은 經驗으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形式은 經驗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經驗論者들은 時와 空까지도 다른 經驗的事物과 가티 吾人의 經驗에 依하여 外界로부터 얻는 것이라 하지만 칸트는 이것을 否認한다. 그러면 時와 空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心靈이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先天的 形式이다. 그것은 經驗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요, 經驗에 압서서 임이 갖추어 있는 形式이다. 이 까닭에 時空은 先驗的 形式 이라한다. 다만 여계서 한 가지 注意할 것은 所謂 『先天的』이라 『先驗的』이라하는 말은 實際 時間 上으로 時空은 經驗보다 압서 存在한다는 것이 안니오, 오즉 論理的으로 時空은 經驗의 前提的, 或은 必須的 條件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時와 空은 비록 다 가티 모든 現象의 前提的 必須的 條件이라 하지만 事實 모든 現象의 必須條件되는 것은 오즉 時間하나 뿐이다. 勿論 우리의 經驗은 外界經驗이 있고 內界經驗이 있다. 그리하여 空間은 外界經驗의 必須條件이 되고 時間은 內界經驗의 必須條件이 된다. 卽 모든 感宮 接觸되는 事實은 모다 空間的 秩序 中에서 認識되고 모든 心理上 狀態는 모다 時間的 秩序 中에서 認識된다. 그러나 最後에 잇서서 보면 모든 感宮 上 接觸되는 事物도 나중에는 吾人의 意識-卽 心理狀態-를 經過하여서 비로소 吾人의 知覺되는 까닭에 究竟 『時間』의 一切現象의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다.

時間과 空間은 엇던 實體가 아니며 實體의 所有한 性質, 或은 그 關係도 아니다. 時空은 오즉 感性이 事物을 接納하는 方式, 卽 直觀의 形式이다. 만일 이 世界에서 時空을 갖춘 直觀의 所有者가 업다하면 이 世界는 決코 時間的이요, 空間的인 世界가 되지 안을 것이다. 이 世界는 그 自身이 本來 時

間的이오, 空間的의 것인 것이 아니라 그와 反하여 이 世界는 우리가 그것을 時間的으로 보고 空間的으로 본 咎에 비로소 時間的으로되 ***원문훼손*** 본 것이다. 그 覺으로 우리는 비록 事物이엿는 時間과 空間을 想像할 수 잇서도 時間, 空間이 엿게는 想像할 수 업다. 時間과 空間은 말하자면 우리의 心靈이 날 새부터 쓰고 나온 眼鏡으로서 벗을 내야 벗을 수 업는 것과 갓다. 그리하여 무릇 心靈의 눈에 빗춰우는 事物은 모다 이 時空이란 眼鏡□ 通過해서만 빗춘다. 그럼으로 모든 事物(註 우에도 『事物』이라 말을 만이 썼지만 그러나 普遍 말하는 事物 二字의 意味와는 좀 다르다. 普遍 말하는 事物은 말서 時空의 를 속에 關聯된 事物이다. 그러나 이에 말하는 事物은 時空이란 形式과 分離식혀 말하는 것이다)은 모다 時間的, 空間的 事物로 되어 잇다. 이것이 時 ***원문훼손*** 에 되는 所以며 同時에 쯤한 先驗的의 것이 오, 經驗的의 것이 아닌 所以이다.

이 理論의 結果에 依하여 우리 純粹數學이 엿더케 可能한가와 問題를 解答할 수 잇다. 學 上에 先驗的 綜合判斷이 잇게되는 所以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心靈이 時間과 空間의 形式을 가졌기 쯤문에 우리는 本質 上 時空의 方式에 依하여 事物을 理解하지 안을 수 업는 咎이다. 그럼으로 만약 엿던 先驗的 判斷이 그 自=概念의 範圍를 빗어나서 그 概念 自身 中에서는 그것을 分析, 或은 引申해닐 수 업는 境遇가 된다면 우리는 이 先驗的 直觀을 根據하여 綜合的 判斷을 엿을 수 잇는 것이다.